

현대차그룹, 중소기업 협력사 복미 전시회 지원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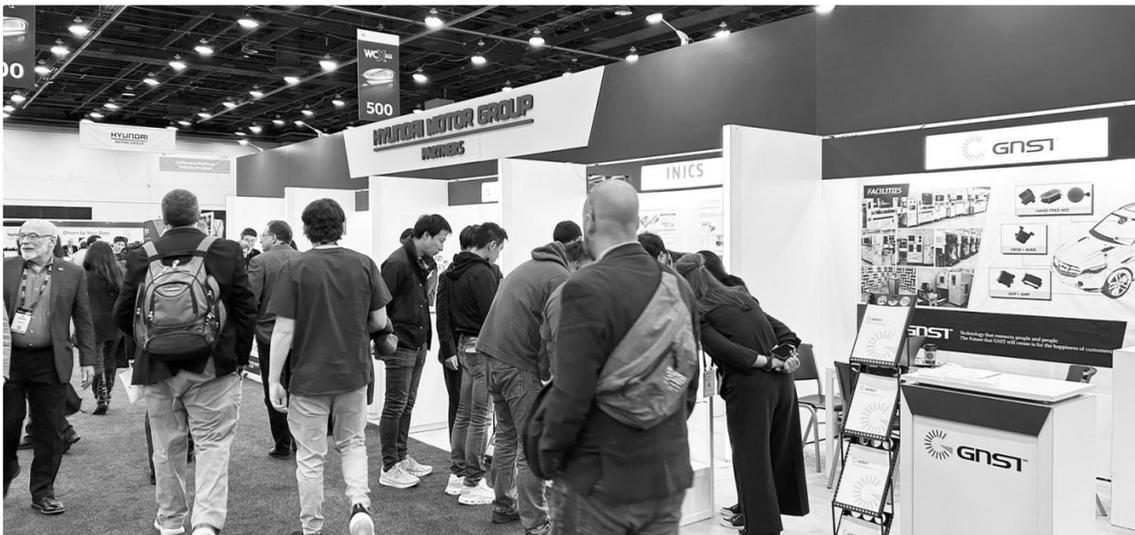
美 디트로이트 WCX서 전시 지원
상당 실적 9천400만불...판로 개척
공동 전시관 운영...수출 긍정 영향
인도·일본·독일서도 공동전시 추진

현대자동차그룹이 수출 환경 급변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신규 시장 개척과 판로 다변화를 지
원하는 상생활동에 나섰다.

15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현대차그룹
은 24개 중소기업들과 함께 지난 8-
10일(현지 시간,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
이트 헌팅턴 플레이스에서 개최된 복미
최대 모빌리티 기술 전시회 'WCX
(World Congress Experience) 2025'
에 공동 참가했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WCX에 '현대차그룹 협
력사관(HYUNDAI MOTOR GROUP
PARTNERS)'을 구축하고, 내부에는
협력사별로 활용 가능한 개별 전시 부스
를 마련해 협력사들이 신기술 및 제품 전
시와 함께 전세계 바이어들과 원활하게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현대차그룹 협력사관에는 동일기계공
업(파워스티어링 기어박스), 세인아이엔
디(와셔, 버스바), 성원피에프(선루프
브라켓), 광성강관공업(인발파이프), 성
림첨단산업(영구자석) 등 24개사가 참
여했으며, 전시회 기간 동안 수출 상담 실
적은 미국을 비롯해 일본, 독일, 사우디아
라비아 등 주요국 84개 기업 9400만 달러
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복미 최대 모빌리티 기술 전시회 'WCX(World Congress Experience) 2025'의 현대자동차그룹 협력사관에 마련된 중소기업 협력사들의 부스에서 협력사 대표와 관계자 등이 바이어들과 수출 관련 상담을 하고 있다.

이 중 일부 협력사는 견적 요청을 접수
하고, 향후 구체적인 계약 일정까지 논의
했다.

중소기업 협력사들은 현대차그룹 전시
관에서 글로벌 완성차업체 및 대형 부품
사들과 직접 네트워킹을 통해 수출 상담
뿐 아니라 신규 비즈니스 파트너십 제안
과 기술 교류 등 사업 확대를 위한 다양한
비즈니스 활동을 펼쳤다.

협력사들은 이번 공동 전시관 운영이
글로벌 바이어들에게 자연스럽게 현대차
그룹 협력기업으로 인지도 수출 상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전시관 운영 지원 외에도

중소기업 협력사들의 해외 판로 개척 및
수출을 위한 전략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특별 세미나도 마련해 현장에서 이뤄진
상담들이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
록 지원했다.

특별세미나는 △미국 등 주요국 정책동
향 및 한국정부 지원사업 △글로벌 완성
차업체 및 대형 부품사(1차 벤더사) 바이
어의 구매방향성 △해외시장별 특성 및
진출 노하우 등으로 구성됐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미국 WCX에 이어
인도와 일본, 독일에서 열리는 글로벌 부
품 전시회에도 중소기업 협력사들과 함께
공동 전시를 추진할 계획이어서 수출 성

과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공동 전시회에 참여한 세인아이엔디
오원현 대표는 "현지 공장이 없는 중소협
력사의 경우 미국 시장 관세의 영향을 직
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양
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
번 행사를 통해 접착한 글로벌 완성차업
체 및 대형 부품업체 바이어들과 통상 환
경 변화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
했다.

성림첨단산업배호근차장은 "현대차그
룹과의 공동 참가를 통해 해외 바이어들
에게 회사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기술력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며 "특히 최근 무역 환경의 불
확실성 속에서 이러한 실질적인 수출마케
팅 지원은 해외 판로 개척에 큰 도움이 된
다"고 평가했다.

현대차그룹 협력사관을 방문한 한 글로
벌 완성차업체 바이어는 "현대차그룹 밸류
체인에 있는 한국의 우수 기업들을 만날
수 있었던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이번 전시회에서 다수의 한국 기업들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018년부터 중소
부품 협력사들과 함께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프랑스 등지에서 열리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 전시회를 참가해왔으며, 지
난 7년간 전시회 참가를 통해 달성한 수출
계약 실적은 약 900억원에 이른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중소기업 협력사
들은 우수한 기술과 제조 경쟁력을 갖추
고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정보와 네트워크
로 인해 해외 판로 개척에 애로사항이 많
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협력사들이 현
대차그룹 협력기업이라는 신뢰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공동 해외 마케팅 행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WCX는 SAE 인터내셔널 주관으
로 완성차를 비롯해 자동차 관련 부품 및
기술 기업, 기계·전기·소프트웨어 엔지니
어 및 연구원 등이 모여 비즈니스 협력은
물론 최신 기술 동향 습득 및 정보를 공유
하는 복미 최대 모빌리티 기술 전시회다.
올해 행사에는 GM, 포드, 스텔란티스,
IBM 등 100여 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했
다. 박소영 기자 soyeong.park@jnilbo.com

금호타이어, 설비구매 협력사 간담회 '성료'

상생 발전·동반 성장 다짐

금호타이어(대표 정일택)가 협력사와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 동반 성장을 다짐
했다.

15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최근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광주공장 본관에서
ESG경영과 상생협력을 주제로 '2025년
설비구매 협력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금호타이어 구매담당 박

은태 상무를 비롯해 설비 구매 주요 협력
사 100개사 대표 및 임원 등 14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금호타이어는 협력사
들을 대상으로 자사의 공개 입찰 프로세
스(K-POS 시스템)와 주요 구매정책 추
진사항을 소개하고 ESG경영 및 글로벌
규제 동향, 공급망 ESG 관리 방안 등을
공유했다.

또 지난해 구매 부문 우수 협력사로 △

소니드 △한일중합기계 △덕암메카를,
ESG 우수 협력사로 △다이나믹디자인
△소니드를 각각 선정했다.

금호타이어는 협력사의 애로사항 청취
하고 동반성장을 통해 당사 ESG경영의
정책방향에 대한 협력관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호타이어 구매담당 박은태 상무는
"금호타이어는 환경, 사회, 경제적 측면에
서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공급망을 관리하



15일 금호타이어는 광주공장 본관에서 ESG경영과 상생협력을 주제로 '2025년 설비 구매 협력사 간담회'를 가졌다.

고 있다"면서 "협력사와의 상생 관계를 구
축하고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를 체계적

으로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
혔다. 박소영 기자

DK 디케이 주식회사

봄, 공기의 새로운 정의 공간을 빛내는 선택

봄철 미세먼지와 꽃가루도
이제 걱정 없이,
깨끗한 공기를 집 안으로.

모든 순간을 더 건강하게
디케이 공기청정기·살균기

www.e-dk.co.kr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